

무주 출신 선수들, 하얼빈 설원 달린다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계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스키 2개 종목에 6명 선수 출전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계아시안게임에 무주군 출신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동계 스포츠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6개 종목 149명의 국가대표 선수 중 2종목(바이애슬론, 스키) 6명이 무주군 출신으로, 바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하는 무주군청 소속 정민성 선수(무주설천고)를 비롯해 고은정 선수(전북체육고 소속, 무주안성고 졸업), 최두진 선수(포천시청 소속, 무주설천고 졸업), 이현주 선수(전북체육고, 무주안성고 졸업), 최윤아 선수(전북체육고 소속, 무주고 졸업)가 11일 개인전, 13일 계주 경기에 출전해 메달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스키 종목에서는 8일 최태희 선수(단국대 소속, 무주설천고 졸업)가 테크니크를 달고 출전했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정민성 선수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출신 동계종목 선수들이 무주와 전북, 나아가 국위선양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다”라며 “우리 선수들이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하얼빈 설원 위에서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도 동계체육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으로 4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지도자 1명, 선수 3명)과 스키스노보드 꿈나무 육성(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에 주력한다.

지난해에는 무주군청을 비롯한 지역 내 학교 바이애슬론과 스키, 스노보드 종목 총 69명의 선수 중에서 국가대표 3명을 비롯한 상비군 5명과 청소년 대표팀 11명 등 총 19명을 배출했으며 동계체전에서는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5, 동메달 17개 등 4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북의 명예를 드높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올해 초 개정된 관계 법령 혜택 홍보

진안군은 올해 초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의 혜택 알리기에 나서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어린이집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세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취득하는 3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생애 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은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차량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세는 기업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세금 부담도 확대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를 부과한다.

또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매년 1월 25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는 연납 공제율을 기존 5%로 유지한다.

장시동 재무과장은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5차 진안고원길 정기총회 개최

지난해 활동 경과보고·향후 계획 논의

진안고원길 제15차 정기총회가 지난 8일 진안 마이산 북부 산악초타운 전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정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고원길 단체는 2006년도 마을문화조사단 활동을 시작으로 2009년 ‘바실길 걷기’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한

국형생태관광10대모델 사업’에 선정돼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로 창립됐다.

이후 14주간 이어 걷는 ‘이어걷기 프로젝트’, ‘달빛걷기’, ‘고원길아이들(아동청소년 걷기 프로그램)’, ‘쓰담걷기(쓰레기를 주워담으며 걷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15년차를 맞은 진안고원길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6만여 명이 다

녔으며, 지난해 이어걷기 참여자 평균 인원은 120명에 달했다. 또한 1월 말 기준 정기회원 회원만 187명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나브로치유길’ 사업과 연계해 치유프로그램을 접목한 진안고원길 14개 구간, 210km, 40개 고개, 100개 마을을 걷는 이어걷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어걷기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치유도시락 개발 및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며 한층 더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총회에서는 2024년 활동 경과보고를 비롯해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 기념품 전달 및 시상, 예·결산 승인 등이 이뤄졌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고원길은 진안의 산과 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위로하는 치유의 길”이라며 “아름다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안의 자연과 아름다운 길을 원하는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길 제15차 정기총회가 지난 8일 진안 마이산 북부 산악초타운 전실에서 개최됐다.

장수군, 제23기 농업인대학 입학생 모집

장수군은 중장기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23기 농업인대학 입학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과(30명), 두릅(30명), AI 농업 활용(30명), 지속가능한 치유농업(30

명) 등 4개 과정 총 1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3회 진행되며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견학 및 실습을 병행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은 △품목별 재배 기술 전반 △AI 프로그램 활용 농업 경영 및 홍보 △생태정원 조성 및 운영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AI 농업활용 및 지속가능한 치유농업 과정은 미래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강의로 교육생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혈관 튼튼 수요일’ 확대 실시

무주군이 군민 ‘혈관 건강 지키기’에 주력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매월 1~3주 차 수요일)에서 ‘혈관 튼튼 수요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매월 4주 차 수요일)로도 확대·실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혈관 튼튼 수요일’을 통해 혈압과 혈당(당화혈색소 포함), 콜레스테롤, 미단백뇨 검사 등의 건강기초검진을 진행하며 뇌졸중, 심근경색의 조기 증상과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한다.

검사 후에는 혈압과 혈당기 대어, 안전잠시비를 지원하는 등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한 저염·저당 식이요법, 맞춤형 운동법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금연클리닉, 연골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승

하 과장은 “최근 20년간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 지역으로서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라며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은 만큼 치료보다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기저,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을 군민과 공유함으로써 자기 주도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혈관 튼튼 수요일이 심뇌혈관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산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 ‘혈관 튼튼 수요일’ 관련 문의는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320-8209)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접수

진안군은 오는 26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예산 14억원(국비 8억, 군비 6억)을 투입하여 주택 300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 20동, 주택 지붕개량 40동으로 총360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가구(저소득·취약계층 등)는 전액, 일반 가구는 가구당 최대 700만원이며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최대 200m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붕개량은 주택 지붕에 한해 우선 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공고/고시(행정)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군민의 건강을 물론 환경보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국부인회 장수군지회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장수읍은 한국부인회 장수군지회(회장 윤금옥)가 장수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부인회는 여성의 자부심과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잠재력을 개발해 복지사회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장수군지회는 지역 내 봉사활동과 성금 기탁 등으로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윤금옥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국부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